조지아관광청 with 문의 1800-1454
코카서스 3국10일여행
4월26일출발 초특가 329만원 GTG Korea 서울사무소

오늘 개봉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소지섭**

수많은 멜로를 찍어봤지만 첫사랑 추억 떠올린건 정말 오랜만이죠



▶배우 소지섭은 스스로를 "사랑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했다. 멜로영화, 로맨스 드라마에 유독 잘 어울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소지섭이 추구하는 사랑을 엿볼 수 있는 영화다. 사진제공 | 피프티원케이

주인공이 겪는 아픈 순간 나도 함께 느껴
이 영화 본다면 누구나 첫사랑 떠올릴 것
어수룩한 패션 센스? 입금 전·후로 달라
내 얘기 할 수 있는 랩, 더 잘하고 싶어요

배우 소지섭(41)은 누구보다 멜로에 어울리는 배우다.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고 영화에서도 그가 유독 빛을 발하는 순간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남자의 모습일 때다. 스스로도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랑에 충실하다"고 규정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사랑'과 뗄 수 없는 사람, 바로 소지섭이다.

14일 개봉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감독 이장훈·제작 무비락)는 그런 소지섭의 매력이 한껏 발휘되는 작품이다. 로맨스와 멜로 장르를 숱하게 소화하면서 쌓은 그의 경력을 통틀어 봐도 단연 주목할 만한 영화다. 소지섭은 "힐링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영화의 주인공은 우진과 수아. 소지섭이 그린 우진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만난 첫사랑(손예진)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한결같이 애틋한 사랑을 쏟는다. 결혼해 아이도 갖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아내를 하늘로 먼저 보낸 그는, 한 사람이 길지 않은 시간동안 겪어야 할 사랑의 환희와 이별의 상처를 표현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처음엔 머릿속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죽은 아내가 1년 만에 돌아오고, 그와 별개로 아들을 둔 아빠라는 설정은 내 입장에서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주변에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도 없다. 희한하게 아이를 키우는 남자들이 없다. 다들 싱글 뿐이다."

그렇다고 놓칠 수도 없는 기회. 무엇보다 "멜로영화"인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 "연기하면서 내 첫사랑의 기억도 떠올라"

로맨스 드라마와 멜로영화를 꾸준히 해온 소지섭이지만 "이번엔 달랐다"고 했다. 멜로에 있어서 '퀸'으로 인정받는 손예진과의 만남부터 그의 각오를 남다르게 했다.

"연기이지만 진짜 설레기도 했고, 주인공이 겪는 가슴 아픈 순간을 나도 함께 느꼈다. 아주 어린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 영화를 보면서 누구나 자기의 첫사랑을 떠올릴 것 같다. 나도 그랬으니까. 첫사랑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손 한 번 잡기 위해 뜸 들이던 그 순간, 설렘을 나눈 시간이 기억에 남아있다."

영화에서 소지섭과 손예진은 93학번. 공중전화와 단관극장, 작은 표지판만 놓인 어두운 버스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모습까지, '그 시절' 향수가 두 사람의 사랑에 녹아있다. 1977년생인 소지섭도 비슷한 정서를 나눈 세대다.

"그런 감성을 이해하느냐고? 그럼! 나도 예전에 공중전화로 호출기 음성사서함에 메시지



소지섭(왼쪽)과 손예진이 함께한 멜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의 한 장면. 웃음과 눈물, 뭉클한 감동을 선사하는 사랑 이야기다. 사진제공 | 무비락

를 엄청 남겼다. 하하! 다들 그랬다. 사랑을 할 때 나는 노력을 하는 편이다. 물론 상대방이 그걸 전부 느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벤트를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무언가 상대가 흘리듯 이야기해도 그걸 거의 기억해 들어주는 편이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를 통해 소지섭은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를 맞았다. 깊이 사랑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겪는 상실과 상처를 연기로 표현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그에게도 영향을 미친 듯 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사랑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한편으론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는 것도 느껴진다. 예전엔 결혼을 딱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혼주의자'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내 나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아이와 마음껏 놀아줄 수나 있을지…. 그런 현실적 고민을 많이 했다."

● "비포·애프터 비교 사진? 즐겨요!"

소지섭은 모든 일에 자기표현이 확실할 것 같은 이미지다. 반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그가 소화한 우진은 전혀 다른 모습. 소극적이고 소심한 면모도 있다. 첫 데이트에 뭘 입을지 몰라 나비넥타이에 핑크빛 재킷을 입는 어수룩한 모습도 보인다. 실제론 우진과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소지섭 스스로 비교한 결과는 그 예상을 빗나갔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와 내 자신이 보는 나는 다르다. 나는 보기보다 엉성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다. 패션센스도 우진이랑 비슷하지 뭐. 나는 입금 전·후가 확실히 다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않나. 하하!"

출연작이 결정되면 소지섭은 '극한'의 몸만들기에 몰입하기로 유명하다. 2년 전 드라마 '오마이 비너스' 촬영 땐 한 달 간 탄수화물을 끊고 7kg을 감량한 일화도 익히 알려져 있다. SNS 등 온라인에 종종 등장하는 소지섭의 평소 모습이 찍힌 사진은 작품에서 보이는 말끔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날 것' 그대로다.

"작품에 출연할 때와 하지 않을 때를 비교하는 사진을 나도 보는 편인데, 정말 웃긴다.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 때로는 나의 리즈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는 사진도 있다. 괜찮다. (웃음) 리즈 시절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수구 선수로 활동하다 모델로 데뷔한 소지섭은 연기를 시작하던 무렵 몇몇 감독으로부터 '넌 배우는 못 될 거다'라는 소리도 들었다고 했다. 소위 '미남'에 속하지 않는, 개성 강한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행은 빨랐다. 소지섭은 멜로의 주인공으로 여성 팬의 사랑을 10년 넘도록 유지하고 있다.

"연기 재미를 처음 일깨운 작품은 '발리에서 생긴 일'이다. 나와 비슷한 세대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나를 기억하고, 조금 어린 친구들은 '주군의 태양'을 기억한다. 아주 어린 친구들에겐 '무한도전'에 나온 아저씨? 하하!"

'재미있게 일하자'는 마음은 소지섭이 가진 소박한 신념. 나영석 PD와 손잡고 새 예능 '숲 속의 작은 집'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그에 따른 것이다. 배우로는 드물게 랩도 하고 힙합 사랑도 유난하다. 작은 예술영화를 수입하는 일도 한다.

"여유가 많아서 취미삼아 하는 건 절대 아니다. 랩은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다. 그걸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 지금 하는 일들을 모두 잘 하고 싶다. 그건 앞으로도 계속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빅뱅 대성, 27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13일 현역 입대했다. 대성은 이날 오후 강원도 화천 육군 27사단 이기자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입대 시간에 맞춰 부대 앞에 나타난 대성은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든 뒤 취재진의 포토라인에서 경례하며 입대 전 마지막 인사를 했다. 대성은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다. 앞서 지드래곤은 2월27일, 태양은 12일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탑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이날 빅뱅의 신곡 '꽃길'이 발표됐다. 2016년 12월 '메이드' 앨범 이후 1년 3개월 만의 신곡인 '꽃길'은 막내 승리를 제외하고 4인 멤버가 군입대를 완료하는 대성의 입대일에 공개됐다. 국방의 의무에 나선 빅뱅이 잠시 떨어지게 될 팬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러브레터다.

EXID, 솔지 빠진 4인조로 내달 컴백

여성그룹 EXID가 4월 초 컴백한다. 갑생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휴식중인 멤버 솔지는 이번에도 팀 활동에 합류하지 못한다. 13일 소속사 바나나컬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EXID는 4월 초 컴백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음반작업에 한창이다. 지난해 11월 네 번째 미니앨범 '풀 문' 이후 5개월 만의 컴백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솔지는 안와감압술을 받은 후 현재 회복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새 음반에 합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EXID는 LE, 정화, 하니, 혜린 4인으로 활동에 나선다. 솔지는 2016년 12월 갑상선기능항진증 확진을 받고 활동을 중단했다. 1월에는 안와감압술을 받았다. 전작 '풀 문' 앨범에 가창자로만 참여했던 솔지는 이번 음반에는 수술 회복 시기와 맞물려 녹음에 참여하지 못했다.

'SNL 코리아 9' 저속 표현 권고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tvN 'SNL 코리아 9'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소위원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일부 청소년 집단에서 사용하는 은어를 뜻하는 '급식체'를 소재로 한 코너에서,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을 포함한 신조어를 비롯해, 일본 성인영화에서 사용되는 말을 차용한 신조어 등 저속한 언어를 사용한 XTM, tvN, e채널 'SNL 코리아 9'에 대해 '권고' 조치하기로 위원 전원이 합의했다. 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저속한 비속어나 은어 등을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 시청자들의 모방을 초래하여 올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방송 제작진의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소위원회는 또 올리브 '뜨거운 사이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의견제시 처분을 내렸다.

이휘재 부자, 6년만에 '슈퍼맨' 하차

개그맨 이휘재와 쌍둥이 아들이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한다. 이휘재 부자는 프로그램이 파일럿으로 방송한 2013년 9월부터 햇수로 6년간 출연해왔다. 이휘재는 프로그램에서의 활약으로 2015년 KBS 방송연예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언, 서준 형제 역시 시청자들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장기 출연에 대한 부담과 쌍둥이 형제가 성장하면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관계자는 13일 "초보아빠 시절부터 능숙한 슈퍼맨이 되기까지 웃음과 감동을 준 이휘재와 쌍둥이에 고맙다"며 "앞으로 변함없이 이휘재 가족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4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이휘재 가족 후임으로 배우 봉태규 가족이 출연한다.

MBC 양승은 아나운서 내달 결혼

MBC 양승은 아나운서가 다음달 결혼한다. 13일 MBC에 따르면 양승은 아나운서는 4월7일 결혼식을 올린다. 예비신랑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다. 양승은은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2007년 11월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MBC '뉴스데스크'를 진행했고, 2013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MBC '생방송 오늘 아침' 진행을 맡았다. MBC 입사 전에는 영화 '울어도 좋습니까?'와 어린이 드라마 '화랑전사 마루'에 출연한 경력도 있다. 2012년 MBC 총파업에 참가했다가 배현진 아나운서와 함께 업무에 복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연말 최승호 MBC 사장이 임명되면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